생활용품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세상에 하나뿐인 트리 가족 사랑이 주렁주렁

하트 모양의 퀼트천에 루돌프와 스노우맨 등을 수놓은 장식.

화분에 솜으로 눈송이 만들어 달고
양초 몇개로 로맨틱 분위기 살리고
낡은 장화·부츠 멋진 소품 재 탄생

테이프를 리본 모양으로 만들어 솔방울을 붙인 솔방울리스.

크리스마스가 1주일 남짓 남았다. 가족끼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며 연말 연시 분위기를 느껴보면 어떨까. 크리스마스 트리는 한 번 설치하면 크리스마스를 비롯한 연말과 신정연휴 등 연초 집안 분위기를 산뜻하게 해주는 인테리어로도 손색이 없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는 전반적인 트렌드인 복고풍의 영향으로 전통적 크리스마스 컬러인 레드와 그린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트리 장식도 지난해까지 인기를 끌었던 실버, 골드 등 메탈릭하고 모던한 느낌보다 어린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는 듯한 따뜻한 느낌의 소품이 주종을 이룬다.아기자기한 느낌의 동물이나 산타, 눈사람 등 아날로그적 감수성을 풍기는 캐릭터의 핸드메이드 장식과 크리스마스 체크 등 동유럽 모티브의 무늬가 들어간 테이블클로스(테이블 커버) 등이 유행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가족이 힘을 모아 만들때 더욱 의미가 있다. 다 만들어진 완제품을 비싼 가격에 사는 것도 좋지만 생활소품을 활용해 아빠·엄마·자녀가 역할을 나눠 트리를 만들면 가족 화합도 자연스럽게 다져진다.

크리스마스 장식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나무 트리를 제일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공간이 협소하거나 여건이 마땅치 않을 때에는 작은 소품을 활용하면 된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대신 집안에 있는 화분에 솜으로 눈송이를 만들어 달아 보는 것도 좋다. 또 거실 한쪽의 빈 벽을 이용해 크리스마스 글자 장식을 달거나 다양한 크리스마트 입체 카드를 여러 장 붙여 놓아도 분위기가 색다르다.

현관문은 리스(Wreath·원형모양의 화관)를 이용해 장식해 보고 소파에는 빨간 쿠션을, 의자와 테이블에도 레드 계열의 체크무늬와 붉은 톤의 패브릭을 덧씌우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양초를 몇 개 마련해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해 보는 것도 좋다. 선반이나 장식장 위를 양초로 장식하고 형광등 대신 켜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층 살아난다. 미니 리스를 초 받침대로 장식하면 더 멋스럽다.

낡은 장화도 잘 만 활용하면 멋진 소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오래된 털 부츠나 아이 장화 등에 귀여운 크리스마스 인형을 장식하면 돈 들이지 않은 아이디어 코너가 완성된다. 빈 박스를 포장지로 싼 뒤 리본으로 묶어 선물상자를 만들어 함께 두면 더욱 이국적인 느낌이 살아난다.

주방에는 식욕을 돋우는 붉은 계열의 테이블 커버로 장식하고, 포인트를 주기위해 센터피스(Centerpiece·식탁의 중앙 장식물)에 반짝이는 오너먼트(Ornament·트리 장신구)와 투명 구슬 등을 크기가 넉넉한 유리볼 등에 담아두면 분위기가 그만이다. 또 퀼트지와 퀼트천을 활용해 하트모양의 루돌프 등 다양한 소품을 만들어 문 손잡이 등에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성탄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펠트지로 만들어 커튼 봉에 매달아 놓은 크리스마스 양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면 가족의 정도 쌓고 연말 분위기도 살릴수 있다. 지난 16일 광주신세계 이마트 매장을 찾은 한 모녀가 장식 소품을 사기전에 완성된 트리를 살펴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트리 풀세트 쇼핑몰선 2만원~6만원선

색상 다양·선명한 광섬유 제품 인기

크리스마스 트리를 직접 만드는 것이 귀찮다면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균일가 생활용품점에서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트리나 소품을 고르는 것도 괜찮다.

인터파크나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들은 크리스마스 트리 구매를 원하는 막바지 쇼핑객들을 상대로 깜짝 할인행사로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업체들은 특히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의 트렌드로 광섬유 제품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광섬유 트리는 전구를 조명으로 사용하는 기존 제품에 비해 90%까지 절전기능이 있고 색상 구현이 훨씬 다양하고 선명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 가정에 알맞은 트리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풀세트로 구입할 경우 가격은 보통 2만원~6만원선이다. 인터파크는 1.2m 소나무 트리에 산타·종·루돌프 등 악세서리 98개를 더해 2만6천910원에, 1.8m 짜리 트리는 6만2천910원에 판매한다. 옥션은 360도 회전이 가능한 1.2m 트리에 광섬유 조명 등 악세서리가 있는 세트를 2만2천800원~2만4천800원에 팔고있다.

롯데닷컴은 오는 23일까지 플라워리스트가 제작한 핸드메이드 트리 세트를 25% 할인 판매하고 있다. 특히 직접 만들수 있는 'DIY' 트리 세트를 2만7천원에서 3만7천원대에 선보이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광주신세계 이마트의 경우 1.8m 스카치트리가 4만2천900원, 1.5m 솔방울트리가 4만9천800원, 1.2m 솔방울트리가 2만9천800원에 팔리고 있다. 또 120구 짜리 컬러전구(5천900원), 5㎜ LED 컬러전구(1만7천900원), 삐에로 눈사람 인형(2개입, 2천950원), 양말장식(1천450원), 스마일 루돌프 인형(4천250원), 산타모자(1천800원) 등이 인기 품목이다.

이밖에 균일가 생활용품점에서는 장식 소품 가격이 모두 3천원 내외에 판매되고 있다. 흔들면 소리가 나는 천사와 산타인형은 2천원대, 화려한 별장식도 3천원을 넘지 않는다. /장필수기자 bungy@